

■ 지금 여기 ■

마우마우 재판의 교훈: 영국의 과거사 반성과 보상

정 희 라

‘영국의 과거사 반성’이라는 말은 웬지 어울리지 않는 단어 조합인 것처럼 느껴진다. 영국사를 전공하면서도 영국의 과거사 반성이나 식민지 보상이라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다. 2012년 10월 5일 영국 고등법원은 1950년대 케냐 무장독립단체인 ‘마우마우(Mau Mau)’ 봉기 진압과정 중 영국군에게 고문을 당한 피해자 4명이 영국 정부에 배상금을 요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 중 가장 연장자인 파울로 누즐리는 영국군에게 가축들에게 쓰는 펜치로 거세를 당했고, 움부구닌기는 죽도록 맞고 주검들 가운데 버려졌었다. 그리고 여성인 제인 마라는 당시 15세의 나이에 끓는 물이 담긴 병을 질 속에 넣는 성고문을 당했던 피해자였다. 영국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는 영국이 식민시기 있었던 고문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였고, 고문 피해자가 영국 법정에서 영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첫 사례이기도 했다. 또한 케냐인들이 국제 사회에 케냐 봉기 때 있었던 진실을 알리는 첫 번째 시도이기도 하였다.



자료: 2012년 런던 고등법원 앞에서 정의를 외치고 있는 케냐인 원고들 (사진 왼쪽부터 WambuguNyingi, Jane Mara, Paulo Nzili)

케냐는 제국주의 시대 비옥한 농토와 유럽인들이 살기 적합한 기후로 영국인들에게 영구 이주지역으로 인기가 높았던 곳이었다. 1895년 영국의 보호령이 된 이후 케냐 내륙 고원지대에는 많은 백인 이민자들이 정착하였다. 이후 1930년대부터 케냐 독립운동이 시작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구식 교육을 받은 키쿠유족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비폭력저항운동이 있었다. 1950년대에 들어오면서 영국의 백인 이주민 우선 정책에 맞서 키쿠유족이 중심이 된 무력투쟁단체인 ‘마우마우’가 결성되었다. 영국 정부는 마우마우의 영국인과 친영파 케냐인에 대한 테러가 시작되자 케냐 봉기를 진압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영국군을 케냐에 투입시켰다. 그간 역사가 보여준 것은 여기까지였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영국인들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신사의 나라’라는 이름 속에 감춰져 있던 수치와 오욕의 역사가 드러났다. 영국군의 케냐 봉기 진압 과정 중 9만 여명의 케냐인이 희생되었고, 16만여 명이 수용소에 감금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력항쟁과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간 정부가 고의적으로 은폐했던 비밀문서가 공개되었는데 고문과 폭력, 학살 등에 대한 케냐인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헨슬롭 파크(Hanslope Park)에 있는 외무부 비밀문서보관소에서 나온 이 문서들에는 만행에 대한 자세한 기록과 함께 이에 는 정부의 승인이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나 있었다. 산채로 불태워 죽이거나 사지를 절단하는 일도 있었고, 물고문, 강간 등 수많은 잔혹행위가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거세와 성고문이 많이 자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오바마 대통령의 조부도 당시 손가락에 못을 박는 고문을 당하고, 거세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승소 판결이후 영국 정부는 2013년 5월 현재 마우마우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상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영국 외무부는 “역사로부터 기꺼이 배운다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가 갖는 지속적인 특징”이라며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영국 정부의 역사에 책임을 지는 태도는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영국의 식민지 가혹행위에 대한 인정을 일본의 태도와 비교하며 지나치게

미화하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신중함과 비판의식이 요구된다. 영국 정부의 과거사 인정과 피해보상이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문서공개와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실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동안 영국 외무부는 잔혹행위에 대한 문서의 존재를 부인했었다. 2009년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영국 정부는 피해보상의 책임이 영국 식민정부를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케냐 정부에게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또한 피해배상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도 케냐인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기미가 보이고, 비슷한 식민지배 만행이 있었던 키프로스나 말레이시아 등지에서도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실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과 후속 조치가 일본 정부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강력하다. 일본 법정은 식민통치시기 고문피해자, 그리고 중군위안부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40여건의 소송을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일본뿐만 아니라 6.25 당시 국군의 양민학살, 광주민주화운동의 피해자 등에 책임이 있는 우리 정부에게도 과거사에 대한 인정과 보상 노력의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 마우마우 재판은 인권을 유린한 영제국의 과오를 알리기 위해 80-90대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던 케냐인들의 승리였다. 또한 영국 재판부의 역사를 직시하는 양심적 태도와 은폐되었던 비밀문서들을 찾아내어 세상에 알린 비판적 역사가들의 숨은 노력이 가져온 승리라고 평가하고 싶다.

이 재판을 계기로 영국에서는 영제국사에 대한 재고와 역사교과서 수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 마우마우 판결이후 최근 현 보수당 정부에 의해 역사 교과서 개정을 위한 자문의원으로 추대된 역사가 닐 퍼거슨(Niall Ferguson)이 비판의 도마에 올라있다. 『제국(Empire)』(2003)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퍼거슨은 책 서두에서 “치타가 사냥하는 광경, 키쿠유족 여성들의 노랫소리, 첫 번째 우기의 냄새, 잘 익은 망고의 맛이 내 의식 속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긴 매혹적인 시간이었다”며 자신의 케냐 식민지 생활을 낭만적으로 회상하였다. 그러나 키쿠유들의 학살이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음에도 학살이나 무력진압에 대한 언급은 책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수정주의 역사가들과 좌파 언론들은 유럽중심주의적이자 제국주의적 역사관을 가진 퍼거슨이 역사교과개혁에 참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영국사를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마우마우 재판이 영국의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반성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내 영국사 연구자들에게 과거사 반성이 영국도 예외가 아님을 인식하고 이를 연구주제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 한다. 또한 일반 독자들도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는 착각 속에서 빠져나와 객관적이고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역사를 볼 수 있길 희망해 본다.



자료: 1954년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마우마우 전사들

경희대학교, heerachung@hotmail.com